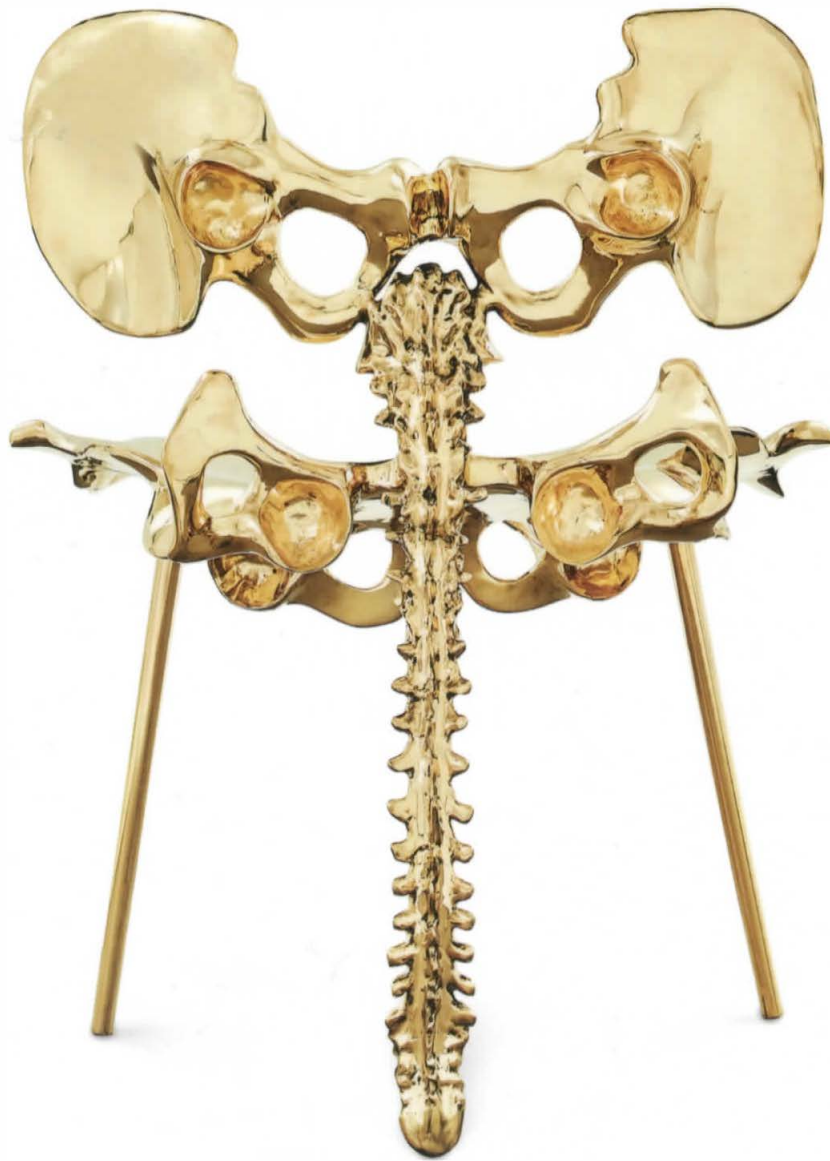


# DESIGN

496 2019/10  
mdesign.designhouse.co.kr

창간 43주년 기념호



지평탄의 33 스텝 체어.  
인간의 척추와 대퇴골을 본떠 만든 브라스 소재의 의자. 083p

세계 톱 컬렉터블  
디자인 갤러리 8

어서 와, 한국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지?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 사진전 /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패키지 '더 북'  
바우하우스 데사우 뮤지엄 개관 / 이정현 볼보자동차 디자이너 인터뷰





##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의 공간 디자이너 피트 분

지난 9월 6일 하얏트의 럭셔리 브랜드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이 오픈했다. 한국의 보자기를 모티프로 로컬 문화를 반영한 이곳의 공간 디자인은 네덜란드 디자이너 피트 분Piet Boon이 맡았다. 그는 오래된 교회를 레스토랑으로 탈바꿈시킨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더 재인The Jane, 독일 함부르크의 폰테나이Fontenay 호텔 등 세계 각지의 럭셔리 공간을 디자인한 스튜디오 피트 분의 설립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는 역동적이면서 예상을 뒤엎는 구조와 동선으로 활기찬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안점에 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호텔은 점점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이곳도 그렇다. 공간의 경계를 최소화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더 주력했다. 특히 에너지 넘치는 강남의 분위기가 공간 안에서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일환으로 로비의 리셉션을 없애 호텔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했고 2층으로 향하는 포디움 형식의 계단을 만들어 열린 공간의 분위기를 강화했다. 한편 지하에 자리한 스파는 공공 공간이지만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드의 배치 간격, 조도 등에 각별히 신경 썼다.

**보자기를 디자인 모티프로 한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보자기 문화는 어떻게 접하게 됐나?**

6년 전 원주 오코벨리 리조트의 객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아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보자기에 함축된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고, 아름다운 조형성은 이번 프로젝트 콘셉트에 적절했다. 사선으로 구성된 객실 안 벽면과, 격자 모양 프레임, 컬러 등은 모두 보자기의 분할과 짜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보자기에 깃든 의미처럼 이곳에서의 경험이 투숙객들에게 귀한 선물처럼 느껴지길 바랐다.

**호텔 곳곳에서 한국적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소가 눈에 띈다.**

맞다. 로컬리티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호텔의 모든 작품은 한국 작가들의 것으로 배치했다. 김병진, 김건주, 신치현, 김환기, 오수환 등은 정형화되지 않은 조형 언어로 한국적 미학을 개성 있게 드러내는 작가들이다. 특히 호텔 2층 천장에 설치한 김건주 작가의 'Floating to Space'는 이곳의 콘셉트와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한편 레스토랑 '조각보'는 다이닝 바, 샴페인 바, 디저트 바가 공간 곳곳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골목 저 골목 거닐며 한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또



1 2층 레스토랑 '조각보'의 그릴 공간.  
2 조각보의 분할된 요소를 모티프로 디자인한  
객실. 늦그릇의 색을 키 컬러로 삼았다.



2

다른 곳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는 한국 사람들의 미식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경계 없는 공간이라는 호텔 안다즈의 콘셉트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로컬 문화를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이벤트홀이야말로 공간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벽을 파티션 개념으로 설치해 유동적으로 연결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기존 호텔 연회장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행사 진행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고민한 것이다. 따라서 수용 인원 24명인 회의실부터 모든 공간을 통합할 경우 최대 4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 형태로 디자인해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유수의 럭셔리 브랜드에서 스튜디오 피트 분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타임리스'다. 우리는 영속적이고 편안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트렌드를 의식한 디자인은 5년 후면

식상해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거슬리는 것 없이 편안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주얼 트렌드보다는 사용자의 행동과 장소의 용도, 지역 문화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시각적, 물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우리의 프로세스다.

**스튜디오 피트 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건축, 인테리어, 그래픽, 스타일링, 소재,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65명으로 이뤄져 있다. 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젊은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자랑거리다.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적합하다. 또한 오리지널 가구 브랜드 '피트 분 컬렉션'도 운영한다. ①

글 유다미 기자 인을 사진 이창화 기자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

총지배인 후안 메르카단테 Juan Mercadante  
건축 디자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 heerim.com  
공간 디자인 피트 분 스튜디오(대표 피트 분), pietboon.com  
오픈 2019년 9월 6일  
객실 수 241개(스위트 객실 25개 포함)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4  
웹사이트 andazseoulgangnam.com

피트 분 네덜란드 출신으로 1983년 공간 및 가구를 디자인하는 스튜디오 피트 분을 설립했다. 기능성, 영속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으로 개인 주택부터 세계 유수의 호텔, 레스토랑 등 럭셔리 브랜드의 공간 디자인을 맡았다.